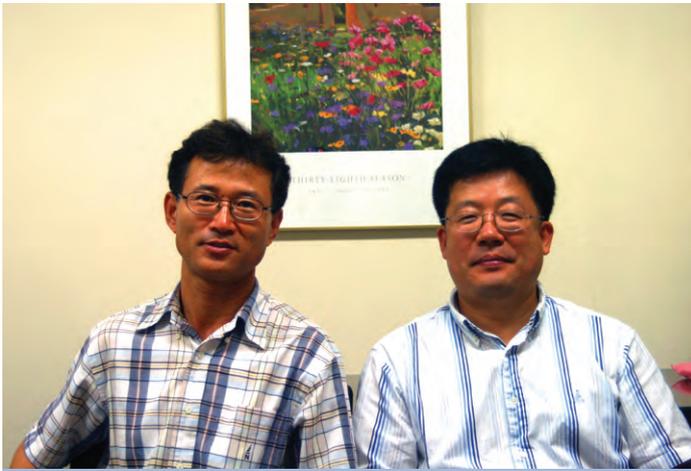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소장 김창민 교수(좌)와 이성훈 HK교수(우)

라틴아메리카(중남미)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는가? 축구, 커피, 혁명, 마약, 그리고 최근에는 와인? 그러나 이곳이 빠블로 네루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가르시아 마르케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같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문인들이나 고 활동한 대륙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색 있고 탁월한 문화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는 우리에게 단편적이거나 왜곡된 지식만으로 알려져 왔다. 세계의 다양한 지역·문화단위 속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연구 기반을 열성적으로 닦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인문대학의 라틴아메리카연구소이다.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지난 1989년 스페인중남미연구소로 출범하였다. 한때 인문학연구원 부설로 편입되었다가, 200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어 독립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같은 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사업(HK) 지원 연구소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10년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주제는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트랜스모더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라틴아메리카의 인류문명사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해 온 두꺼운 자료를 보여주며 연구소 소장인 김창민 교수(서어서문학과, 50)가 연구소의 현황을 설명한다. 연구인력은 인문대학 소속의 기존 전임교수 외에 연구소 소속의 HK교수 3명과 HK연구교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HK교수 두 분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문학 전문가이고 한 분은 정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종교나 인류학 분야에서 한 분의 HK교수를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창민 교수는 원래 인문대학의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였으나 다시 서어서문학과로 편입하여 이 분야 연구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 졸업 후에 1년 정도 회사에 근무하다 학문에 대한 꿈을 잊지 못해 대학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인문대학에 처음으로 설립된 서어서문학과에 진학하여 스페인어권 문학을 새롭게 공부해 보기로 한 것이다. 김 교수는 졸업 후 마드리드의 콤포블루텐세대학(Universidad Complutense)에서 유학하여 중남미문학 전공으로 1995년에 학위를 받았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스페인과 미국에 차례로 복속되었던 푸에르토리코의 문학에 나타나는 문화·정치적인 갈등

과 아이덴티티 문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썼다. “중남미 안에서도 푸에르토리코는 미국과의 관계과 긴밀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중남미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문화적인 특수성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995년에 모교에 부임한 김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2001) 등의 저서와 다수의 중남미문학을 번역해 왔다. 단단하면서도 너그러운 인상의 김 교수는 인문대학에서 교무부학장을 지냈고, 만능 스포츠맨으로 이름이 높으며 바둑 실력 또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교양과목으로 행복론에 대해서도 강의를 열어 왔다.

김창민 교수와 자리를 함께한 이성훈 HK교수(43) 역시 본교 서어서문학과 출신이다. 김 교수보다 나이는 몇 해 아래이지만, 학사 편입했던 김 교수와 함께 학교를 다닌 동기이다. 마드리드 콤포블루텐세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도, 중남미문학을 전공한 것도 같다. “고등학교 때 시험에 당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답이었는데, 저는 그 때 답을 못 적었거든요. 그게 아마 트라우마가 돼서 대학에 갈 때 스페인어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스페인어권 문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를 재치 있게 들려준다. 정치적으로 암울하던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 교수는 김남주 시인이 번역한 네루다의 사회참여적인 시를 즐겨 읽었다고 한다. 이후 스페인에서 칠레문학을 전공하여 200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1년 정도 칠레에 머물며 공부하기도 했다. “칠레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쿠데타에 동원된 탱크가 지나가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멈추어 섰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칠레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쓰는 라틴아메리카라고 해서 한 가지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라틴아메리카는 그만큼 피부색, 기질, 기후, 음식, 문화 등에서 큰 차이와 다양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원래의 풍토적, 인종적 요인 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자들이 영향을 끼친 탓이기도 하다. 그러한 ‘다양성’이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임을 두 교수는 강조한다.

이 밖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는 사회정치 전문가인 이성형 박사와 페루 문학 전문가인 우석근 박사가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박사는 이화여대 조교수를 지냈고 라틴아메리카에 관해 10여 권의 저서(단독 저서 7권 포함)를 썼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이 지역 전문가이다. 우 박사는 안데스산맥 주변 국가의 원주민이나 구전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식민지배자였던 유럽계 이주민 외에 이 지역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도 이 지역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남미문학 연구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트랜스라틴(Trans-Latin) 총서>를 기획중이다. ‘트랜스라틴’은 상호 소통과 존중의 라틴아메리카를 희망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총서의 첫 권인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한다』(니콜라 밀러와 스티븐 하트 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옮김)가 지난 해에 출간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이성형 HK교수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와 3권의 번역서가 더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격월간으로 웹진 트랜스라틴(<http://translatin.snu.ac.kr>)을 발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한 시사뉴스, 학술동향, 문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진으로 현재 7호까지 나와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인구가 4억5천만에 달합니다. 또 세계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문화적인 다양성도 매우 높지요.

이에 비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서울대학교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역 연구의 탄탄한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민 교수의 포부이다. 라틴아메리카연구소의 이러한 노력이 라틴아메리카를 먼 곳의 교역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더욱 균형 있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이주형 · 김소연)

○ 교수 정년퇴임

인문대학에서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다음 두 분 교수가 퇴직한다. 인문학 교육에 헌신한 두 분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두 분의 업적을 간단히 소개한다.



임홍빈 교수

문법론 연구의 대가인 임홍빈 교수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조교수를 거쳐 1981년부터 서울대에 재직해 왔다. 1989~1990년에는 동경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 객원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구부장(1988-1989)과 국립국어연구원 연구1부장(1990-1992)을 역임했다. 저서로 『국어문법론 1』(1995, 공저), 『북한의 문법론 연구』(1997), 『국어 문법의 심층 1, 2, 3』(1998), 『우리말에 대한 성찰』(2005) 등이 있다.



이상익 교수

이상익 교수는 음운론, 음성학, 형태론 연구의 권위자로 이름이 높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옌칭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냈다. 198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해 왔으며 독일 뮌헨대학 연구교수와 호주 시드니대학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개설된 서울대학교 미주센터 설립단장을 맡기도 했다. 저서로 『국어음운론』(1984, 공저), 『계량국어학 연구』(2001), 『서울말 진경국어 연구』(2006), 『한국어 체언의 음변화 연구』(2007) 등이 있다.

○ 학과 · 연구소 소식

영어영문학과

콜로퀴엄

5월 22일 53회 콜로퀴엄에 박선주 교수(한양대)의 <De-nationalized Humanity through Science: Monsters and Orphans in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라는 제목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해외 저명학자 초청 대학원생 세미나 및 특별강연

6월 15일에 Myung Mi Kim 교수(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의 <Modernist Genealogies of American Poetry>, 6월 16일에 <From New England to San Francisco: Postmodern American Poetry>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워크숍

6월 19일(금) 제 38회 워크숍에서 정한별(박사과정)의 <The Study of Third Turns in EFL Writing Tutorial Class Discourse> 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영문화권연구소

집담회

5월 1일에 <Natural Rights: Violence and Early Modern Legal Discourse>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가졌다. 이성원 교수(영어영문학과)가 강연자로 나섰다. 한편 5월 23일에는 이석구(연세대)씨를 초청하여 <쿵시의 『아만인을 기다리며』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알레고리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미국학연구소

강연회

6월 17일 오후 3시 신앙인문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외저명학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Myung Mi Kim(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교수를 초청하여 <Languages of Poetry: Languages of Migration>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강연회는 미국학연구소와 영문화권연구소, 영어영문학과가 공동 주최했다.

집담회

6월 4일과 22일 미국학연구소 소회의실에서 두 차례 교수집담회를 가졌다. 4일에는 배영수 교수(서양사학과)를 연사로 초청하여 <파워엘리트의 재기: 출간 반세기 후의 회고>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22일에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이재경 교수를 초청하여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술지 발행

5월 30일자로 『미국학』 제32권 1호를 발간하였다. 미국학연구소에서는 매년 2회 학술지를 정기 발행하고 있다. 투고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가려 매년 봄 최우수 논문(1,000만원), 우수(500만원) 논문 각 1편에 대해 '무향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학술논문 투고 및 무향학술상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학연구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공지하고 있다.

불어불문학과

학술대회

5월 22일 <변화하는 아프리카: 경계의 분할과 이동>을 주제로 신앙인문학술정보관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회는 불어불문과연구소, 학술진흥재단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화' 연구팀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최동환(전 주세네갈 대사), 이문희(예일대 박사과정), 이규현(덕성여대), 심재중(서울대)씨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